

대망론 꺾은 대세론... 文, 충청도 1위

민주당 대선 충청경선 문재인 47.8, 안희정 36.7, 이재명 15.3%

호남에 이어 2연승... 문,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직행 가능성 커져

Ⓟ '선택 2017' 대선 D-40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 순회경선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했다. <관련기사 3·4면>

문 전 대표는 29일 오후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두 번째 순회경선인 충청 경선에서 유효투표수 대비 47.8%를 득표, 2위를 차지한 안희정 충남지사(36.7%)를 11.1%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5.3%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이 결과는 지난 22일 전국 투표소투표(충청권)와 27~28일 충청권 ARS 투표, 이날 실시된 충청지역 대의원 현장투표를 합산한 수치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이곳에서는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호남과 충청을 합친 누계 기준으로 문 전 대표는 55.9%로 과반을 기록했다. 안 지사는 25.8%, 이 시장은 18.0%를 각각 차지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27일 호남 경선에서 문 전 대표는 유효투표수 대비 60.2%를 기록, 20.0%를 득표한 안 지사와 19.4%를 얻은 이 시장을 큰 차이로 누른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호남에 이어 안 지사의 뒷발인 충청에서 2연승을 하며 대세론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결선 없는 본선 직행 가능성을 키웠다. 안 지사는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 저력을 보였으나 '문재인 대세론'을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힘겨운 추격전을 벌

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영남, 내달 3일 수도권·강원·제주 등 두 차례의 경선을 남겨두고 있으며, 문 전 대표가 누적 과반을 득표하면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된다. 반대로 과반이 안될 경우 8월 12위 후보 간에 결선이 치러진다.

이 같은 문 전 대표의 2연승은 정권교체를 위해 '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표심이 호남에서부터 충청까지 이어진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문 전 대표가 대세론을 이어감에 따라 두 차례 남은 민주당 경선이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충청 순회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충청인들께서 아까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힘을 모아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 드린다"며 "압도적인 대선 승리의 힘은 압도적 경선 승리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순회경선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최선을 다했고 (충청 경선) 결과는 2·3위 득표율이 50%를 넘었다. 긍정적인 메시지로 본다"며 "60%가 넘는 수도권 유권자에게 최대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말해 역전의 기회를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지경 기자·대전일보 송충원 기자 jkpark@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9일 오후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 충청권 순회투표에서 47.8%로 1위를 차지한 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36.7%로 2위를 차지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세월호, 오늘 목포신항 입항 불투명

기상 악화... 해수부 "발견된 뗏목각 7점은 돼지뼈" 정정

세월호의 30일 목포신항으로 출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세월호 인양 현장 해역의 높은 파도 때문에 이송 준비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6면>

해양수산부는 29일 "반잠수식 선박에 부착된 날개탑 제거 작업과 세월호 선체 고정작업을 마무리하고, 30일 목포신항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높은 파도 탓에 하루종일 작업을 하지 못하면서 30일 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편 앞서 지난 28일 세월호 선체 밖에서 발견된 뗏목각 7점은 미수습자 유골이

아닌 돼지뼈로 확인됐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에서 물과 펄이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여서 미수습자 유해 등의 유실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돼지뼈가 객실 부근에서 흘러나올 정도로 선체 안의 내용물이 뒤섞일 가능성이 커 선체 내부에 남아있을지 모를 미수습자 유해가 유실될 우려가 상존한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유해 식별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반잠수식 선박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해경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피의자 박근혜, 법원으로 바로 출석

유치 장소는 추후 결정할 듯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관련기사 2면>

29일 서울중앙지법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30일 오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검찰 측에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를 떠나 곧장 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후임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는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 청사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서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 또 한차례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 안팎에선 심사 결과가 31일 새벽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예술 꿈나무들의 큰 잔치

제62회 호남예술제 전국대회

접수 음악·무용·국악 4월 5일(수)~12일(수)
미술·작문 5월 15일(월)~17일(수)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전 '제 62회 호남예술제'가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우치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 창사 65주년을 맞은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는 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을 길러낸 대회입니다.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자격: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등학교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 종목 성인 참가 가능(한국무용, 국악)

■경연기간: 4월 19일(수)~5월 30일(화)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접수방법: 방문신청:광주일보 문화사업국

우편신청: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후 확정 4월 17일(월) 발표)

■시상: 우수학교상, 우수지도상 수여

개인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단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목포시·나주시



光州日報社



봄날의 행복한 추억

정명화·손열음·신지아 공연 성료 ▶16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예술, 문화, 창조와 젊음이 공존하는

A.C.C DESIGN HOTEL

도심 속 침과 공간 예술이 공존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가 머무르는 호텔'

A.C.C 디자인 호텔 예약처 062-234-8000, www.acchotel.kr